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수

한국구술인물사⑭ / 전 재 성 빠알리성전협회 회장 - 1970년대 중반 불교운동

### ‘민중불교론’ 감화... 민주화운동 동참으로

전재성은 민중불교의 근거를 한국불교의 역사에서 찾고자 했다. 1970년대 중반 그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중신학이 유행했음을 잘 알았다. 그는 파울로 프레리의 《페다고지》라는 책에서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분회퍼의 신학론에 관심이 깊었던 전재성은 한국불교에서 민중 개념을 찾고자 했다. 원효가 천존만라에 다가가는 행위에서 민중개념을 찾고자 했다. 또 만해의 《조선불교유신론》에서 ‘민중불교’의 근거를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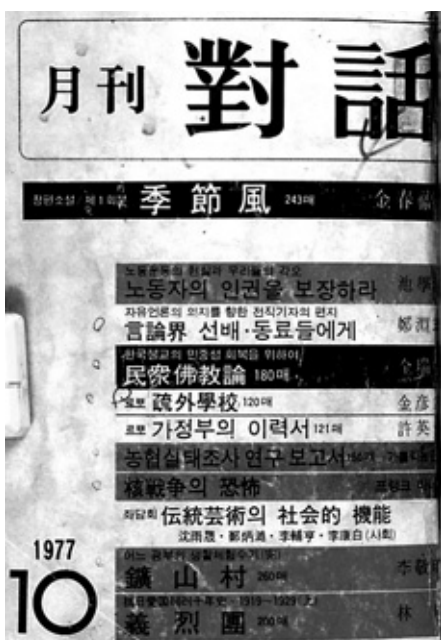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이런 갈등들이 심해지니까 그걸 종교적으로 좀 이렇게 조절해 보려고 중간에 어떤 교량역할을 하기 위한 모임이 있었어요. 그 때 거기에 참여해 상당히 많은 걸 배웠죠. 그래서 조금 어떤 사회적인 갈등을 중도적인 입장에서 수용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인제 굉장히 강했죠. 저도 그래서 《민중불교론》을 쓰게 된 것...”

많은 불교인들이 자신의 《민중불교론》을 읽고 민주화 운동에 가담하게 됐다고 술회

한다. 또한 의식 있는 스님들이 자신의 글을 읽었노라고 고백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민중불교론》을 읽고 출가했다고도 한다.

그 글이 불교인을 향한 반향이 컸다. 1970년대 말 유신독재에 항거하는 대불련의 활동이 이어졌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신군부의 등장으로 국가적 혼란이 이어졌을 때 《민중불교론》 지침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연대에 김유철 동양사학과 교수하고 또 지금 그 서감대 정치외교학과 또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정치학과 교수가 있어요. 그 양반 그 친구들이 서울대 불교학 생회 데모를 주동했죠. 대학사회에서 불교 이름을 걸고 시국관계 담화를 발표하고 이렇게 했던 게 그 당시 칠십 아마 70년대 후반인데 그러구 인제 또 동국대에서도 이희선 씨 뭐 이렇게 해서 그 때 당시에 우리 그러고 또 지금 80년대 운동권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벌써 칠십년대 말에 그 불교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민중불교론》을 읽었던 거 같아요.”



전재성 박사가 기고했던 민중불교론이 실린 월간 《대화》

《민중불교론》 발표 이후 전재성은 여러 잡지사로부터 원고청탁을 받게 된다. <씨

알의 소리> 혹은 <뿌리깊은 나무> 등 진보 잡지에 글을 기고했다. 당시 고은, 함석헌 등 쟁쟁한 인사들 사이에서 학생신분인 전재성(전서암)의 글도 게재됐다. 특히 ‘스님 제발 들어보오’ 같은 스님들의 사회참여를 촉구하는 글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인 원의범 교수의 권고도 있었지만, 전재성은 요가수행자의 글을 읽고 인도철학을 전공하기 위해 방향을 돌린다.

“빠라만하사 요가난다의 오토바이오그라피(자서전)라는 책이예요. 그 때는 인제 우리나라 그 몇 년있다가 몇 십 년 있다가 우리나라 번역이 됐지만은(1987) 그 당시에는 영어 원서밖에 없었던 말이에요. 이 친구(조소야)가 영어 원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집에 와 가지고 그걸 밤새도록 읽었어요. 사진 찾아가면서 읽고 그 래가지고 제가 결정적인 동기 가운데 하나 가 그 인도철학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꾼 거가 오토바이오그라피라는 <요가수행자의 일대기>라고 하는 그 책을 보고 나서 예요.”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㉞ 불국사

### 신라 땅이 곧 불국토

석가탑과 다보탑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전개된 동아시아 신앙불교의 응축이다. 통일신라시대는 《법화경》을 중심으로 시작된 불교의 흐름에서 또 다른 신앙의 발전을 보여준다. 바로 아미타불신앙이다.

아미타불 신앙 역시 불국사의 건축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불국사 대웅전은 건립이후, 점차 아미타불과 비로자나불이 조성되면서 새로운 영역이 조성됐다. 하나의 건축구조에 덧붙여 늘리듯 지어진 공간은 불국사 건축의 또 다른 묘미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옆에는 아미타부처님, 뒤쪽에는 비로자나불을 비롯해 관세음보살이 각각의 영역을 유지하며 새로운 부처님의 세계를 만들어 냈다.

아미타세계의 중심에 있는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 166cm의 불상이다. 원만하고 자비로운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있으며, 눈썹은 반원형이고 낫같은 오목하다. 신체 표현은 장중해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원손으로 감싸고 있어 비로자나불이 취하는 일반적인 손 모양과는 반대로 표현됐다. 이 두 부처님은 8세기 중엽 작품인 석굴암본존불(국보 제24호)의 특징과는 다르며, 9세기 불상의 특징을 보여준다.

최치원이 지은 《불국사고금역대기》에는 이 두 부처님에 대한 설명이 기록돼 있지만, 이를 두고 학계에 대한 반응은 분분하다. 이 기록에는 불상이 9세기 경 조성된 불상의 양식과의 유사점을 설명하고 있다. 불국사의 종파문제도 학자들 간에는 논란거리인데, 《삼국유사》에서는 화엄종과 법상종 두 계통의 기록에 놓았다. 근래에 발견된 ‘목서지편’ 공개 이후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에는 화엄종 계열 사찰로 알려진 불국사가 유가엄, 즉 법상종 계열에 속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불국사는 부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한 신라인들의 마음은 종파를 넘어 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수많은 사상을 엮고 세월을 더해가며 구축해 놓은 그들의 세계는 토함산을 불국토로 만들려고 하던 신라인들의 이상 9품인(九品印) 중에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을 보이며, 양손의 위치에 있어서 좌우가 서로 바뀐 것은 국보 제26호 비로자나불좌상에서도 보이는 공통된 점이다. 불국사 비로전에 모셔져 있는 비로자나불은 177cm로, 얼굴은 위엄이 있으면서도 자비로운 인상을 풍긴다. 왼쪽 어깨에만 걸쳐 입은 옷은 매우 얇게 표현돼 당당한 신체의 굴곡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손모양은 오른손 검지를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석가탑·다보탑은 법화 신앙

불국사는 아미타 신앙 상징

불국토 향해 종파 초월해

건장한 남성의 체구를 연상시키며, 두 무릎은 넓게 퍼져서 매우 안정된 느낌을 준다. 턱 벌어진 어깨, 양감 있는 당당한 가슴, 잘록한 허리 등에서 사실적이면서 세련된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26호), 백불사 금동약사여래입상(국보 제28호)과 함께 통일신라 3대 금동불상으로 불린다. 부처님의 손 모양(手印)은 아미타부처님의 9품인(九品印) 중에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을 보이며, 양손의 위치에 있어서 좌우가 서로 바뀐 것은 국보 제26호 비로자나불좌상에서도 보이는 공통된 점이다.

불국사 비로전에 모셔져 있는 비로자나불은 177cm로, 얼굴은 위엄이 있으면서도 자비로운 인상을 풍긴다. 왼쪽 어깨에만 걸쳐 입은 옷은 매우 얇게 표현돼 당당한 신체의 굴곡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손모양은 오른손 검지를

법을 하시는 자리에 ‘친구’ 격인 긴나라와 마후라가 등과 어울려 음악과 향, 꽃 등으로 공양을 올리곤 한다. 본업은 음악의 신으로서 악기를 연주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악사(樂士)나 미술사를 건달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예능인을 천시하는 풍습과 맞아 떨어져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먹는 사람’을 ‘건달(乾達)’이라고 부르게 됐다. 향기를 먹고 사는 우아한 천계의 음악신의 이름이 다른 나라에 들어와 이처럼 전혀 다르게 사용되다니 참으로 절묘한 변화구라고 할 수 있다.

건달파는 천상의 음악을 담당하는 동시에 천상의 물 소마(Soma)를 지키는 역할도 맡고 있으며 부업으로 밀교에서는 어린아이에게 해를 가하는 귀신을 보호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조민기 작가·칼럼니스트

###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⑤ - 등장인물 소개 ‘천룡팔부’

### 사람 해치는 귀신 ‘야차’가 중생을 보호하게 된 사연은?

일본의 여성 만화가들로 이루어진 ‘클렘프’의 데뷔작 《성전(聖戰) - 리그베다》는 천계 신들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일개 무장에 불과했던 제석천(帝釋天)이 반역을 일으켜 선제를 살해하고 도리천의 주인 자리에 앉았다’는 매우 파격적인 설정으로 시작된다.

신화 속에서 제석은 매우 매력적이며 불경 속에서는 언제나 불법의 수호를 자청하는 늙은하고 든든하며 신랄한 신으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가 도리천의 주인이 되기까지 피할 수 없는 전쟁을 거쳤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성전(聖戰) - 리그베다》에서는 이미 신화에서 상세하게 기록된 ‘전쟁’에 ‘상상력’이라는 인간 고유의 영역을 싹트 발휘해 전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특히 주인공으로 제석이 아닌 팔부신장 중에서 가장 비중이 작은 편에 속하는 야차왕(夜叉王)을 내세움으로써 그가 가진 신랄한 면을 한껏 부각시킨다.

비밀스럽게 중생을 보호해주는 야차 팔부신장(八部神將)의 으뜸인 천(天) ·

용(龍) 다음으로 등장하는 존재들은 하나 같이 ‘환상적’이다. 그 중에서 가장 현실감 있는 존재를 꼽자면 간신히 ‘야차(夜叉)’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야차’라는 이름은 본래 ‘놀라게 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여기에는 민첩하고 교활하며 용맹함과 비밀스럽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인도 신화에서 야차는 본래 신이긴 신인데 사람을 해치는 귀신이다. 그래서 불경이 아닌 곳에서는 무섭기 짝이 없는 존재감을 자랑하며 주로 악귀(惡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야차는 다른 귀신을 먹고 살기 때문에 다른 귀신들도 야차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불교에 수용된 후 야차는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을 보호하는 매우 좋은 신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신랄한 신으로써 이미지 변신을 시도해도 좋을 텐데 야차는 자신 본연의 모습을 깨끗하게 지킨다. 무서운 귀신의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이름처럼 ‘비밀스럽게’ 악귀들로부터 중생을 보호해 준다.

《성전(聖戰) - 리그베다》에서도 야차는 아쉬울 것 없는 그 능력과 힘으로 인해 끌



건달바. 삽화=김영수

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지만 결코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는 의의있고 ‘착한’ 모습을 보여준다. 게다가 ‘순정만화 주인공’에 걸맞게 환절한 미남의 모습을 하고 있어 걸모습으로는 결코 악귀(惡鬼)를 연상할 수 없게끔 장치해 놓았다.

향기(香氣)를 먹고사는 우아한 건달파 건달파(乾達婆)란 범어로 변화무쌍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한 ‘식향(食香)’이라고도 부르는데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향기를 먹고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나 농염한 향기를 풍긴다고 한다. 부처님이 설

## 2011 길상사 여름선수권대회

너는 내 세상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달이 지났는데, 너는 내 세상 어디쯤에 와 있는나?

-법정 스님의 '오두막편지' 중에서-

길상사의 준비된 여름선수권대회를 통해 여러분의 자리와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려보십시오

구분	날 짜	기간	모집대상(정원)	참가비
선수권회 1차	7월 22일(금) ~ 7월 23일(토)	1박 2일	마감	마감
선수권회 2차	7월 25일(월) ~ 7월 27일(수)	2박 3일	마감	마감
선수권회 3차	7월 28일(목) ~ 7월 31일(일)	3박 4일	일반인(70명)	12만원
선수권회 4차	8월 1일(월) ~ 8월 3일(수)	2박 3일	마감	마감
선수권회 5차	8월 4일(목) ~ 8월 7일(일)	3박 4일	일반인(70명)	12만원

◆ 참가 및 신청방법 : <http://www.gilsangsa.or.kr>

- 홈페이지 신청하러가기 클릭 → 신청서작성 → 신청차수 결정 → 신청차명 입금
- 준비물 : 수건, 세면도구, 메모용 필기구, 우산, 개인컵, 반팔티셔츠(흰색)여벌, 운동화
- 참가 및 문의전화 : 02)3672-0036 / 담당자 객현준

◆ 주의사항

- 참가를 원하시는 희망 차수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비 입금 시 입금자 명은 참가자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금계좌안내 : 신한은행 100-021-1136827」
- 환불기준 각 차수별선수권회 시작 2일전까지 환불가능.

◆ 신청접수 확인

- 홈페이지 우측 상단 신청조회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 대한불교 일월조계종 종도모집

상부, 상조, 상생의 이념으로 참나를 찾는 도반으로 함께 하실 종도님을 모십니다.

\*연수원(기도원)  
전남 곡성군 옥과면(설산) 기도원에서 수행하실 참신한 스님, 청신사, 청신녀님을 찾습니다.

\*총무원  
전북 익산시 황등면 죽촌 1길 9-5

장원스님 011-677-8525

##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http://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http://www.yjkukak.com)